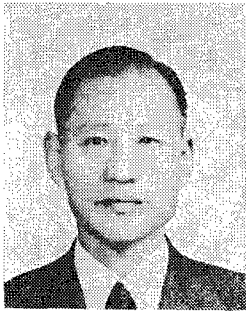


農村改良事業과 營農改善事業의 並行合理化

李 基 春

(農博·學會 副會長·全北大學校 農科大學教授)



우리 나라는 建國以來 農地改良事業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다. 特히 最近에는 農業工學의 發展에 따라 從前에는 거의 關心조차 없었던 不良環境地에 對해서도 이 事業이 大規模的으로 實施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農地改良事業이라는 것은 土地 및 물이라고 하는 農業生産의 基盤을 整備改善하는 일로서 農業生産力의 增進을 約束하는 事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農地改良事業을 實施한 것만으로 즉시 大增産이 實現되는 것은 아니다.

農地改良事業에 依해서 造成된 새로운 農地의 條件에 適合한 栽培技術이나 農業經營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所期의 效果를 견출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最近 우리 나라에서 많이 實施하고 있는 벼 早期栽培 田畚輪換栽培 그리고 밭 灌溉 等の 새로운 栽培技術이 만드시 뒤따라야 하며 또 이러한 새로운 栽培技術은 마찬가지로 農地改良事業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크게 普及伸張되지 못하는 境遇가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이 兩者의 事業이 有機的인 連結이 없이 서로 斷絶된 形態로서 個別的으로 實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農業生産力을 飛躍的으로 發展시키려면 農地改良事業과 農事改良事業이 恒常一體가 되어 一連의 事業으로서 推進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를 爲해서는 農地改良分野와 營農改善分野에 從事하는 技術者들이 서로 相對方의 分野, 그리고 兩者를 連結하는 問題에 對해 充分한 認識과 理解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水稻作으로서의 食糧의 自給自足은 不可能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77年度의 米穀收穫量이 4,200萬石에 이르렀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農業生産高의 伸張에 對한 希望과 自身을 갖게 되었던 것이며 이와같은 增産의 技術的 要因을 살펴 보면 첫째, 農地改良, 둘째, 品種改良, 셋째, 早期栽培技術, 넷째, 農藥의 普及, 다섯째, 施肥法改善, 여섯째 農業의 機械化 等으로 分析할 수 있다.

農業生産에 關한 科學技術의 發達이 이와같은 結果를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食糧生産은 앞으로 얼마든지 增大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農業生産力을 增大시키려면 앞에서 列擧한 여러가지의 生産手段이 綜合的으로 計劃되고 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農地改良이라고 하는 土地生産力增強의 手段과 그 밖의 栽培營農技術과의 사이에

는 密接 不可分의 綜合化가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까지 各己 遊離된 處地에서 事業이 推進되어 오고 있는 것이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인 것이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近年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의 農業技術은 놀라우리만치 發展하고 있으나 그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農地의 擴張과 아울러 生産基盤인 農耕地의 整備 및 灌排水施設等이 갖추어져 감으로써 年例行事 처럼 찾아오는 旱害와 洪水被害가 顯著하게 減少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特히 우리 나라의 農業의 基幹인 水稻作의 改善을 爲해서는 水利條件의 改善이 不可缺한 것이며 또 最近 經營技術의 改善이 時急한 田作에 對해서도 밭灌溉 傾斜地의 農業道路의 整備等이 技術改善의 基盤을 整備하는 意味에서 重要視되고 있다.

이러한 視點에서 다시 한번 實情을 살펴 보건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用水不足의 耕地, 排水不良地, 冷害地, 老朽化畝, 工場廢水汚染地等 改良을 要하는 耕地가 相當한 面積에 達하고 있다.

이러한 惡條件을 가지고 있는 耕地에 對해 우선 用水改良, 排水改良, 客土 그리고 밭灌溉等의 農地改良을 實施 한다는 것은 農業生産을 增大시키기 爲한 基本的인 措置이며 오늘 날까지 特히 食糧增産을 爲해 政府에서는 이 事業에 莫大한 金額의 財政投資를 繼續해 왔다. 이것도 農地改良이 食糧增産의 基本的인 手段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巨額을 投資해서 農地改良을 實施한 一部地域에서 農地改良을 했는데도 오히려 改良前보다 減産되었다는 例가 있다. 어쩌서 이러한 結果가 생겼을까? 그리고 이 의혹을 풀고 農地改良事業의 增産效果를 期하기 爲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究明해 보는 것은 비단 農地改良事業을 爲해서 뿐 아니라 食糧增産이라고하는 莫重한 使命을 걸머지고 있는 우리 나라 農業을 爲해서도 至極히 必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두말할 必要도 없이 農地改良은 農業生産의 增大를 圖謀하는 基本手段임에는 틀림 없지만 農地改良을 實施해도 그만큼 그 즉시 土地의 農業生産이 增大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닌 것이다. 排水不良, 또는 用水不足인 土地에 對해 排水 또는 用水改良事業을 實施하면 적어도 灌水被害, 浸水被害 또는 旱魃被害等이 解消되므로 그것만으로도 從前보다는 增産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增産은 고사하고 減産이 되기도 한다. 한가지 例를 들자면 灌水狀態에서는 分解되지 않고 土壤 속에 集積되어 있던 有機物이 農地改良을 해서 乾畝이 되면 갑자기 分解해서 肥料의 效果가 나타나게 되므로 窒素의 施用量은 硫安으로 換算해서 最大 16~20kg이면 될만치 乾土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農家에서는 從前대로 硫安을 50~60kg을 施用하든지 하면 틀림 없이 窒素過多의 障害를 받게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例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지만 어떤든 모처럼 農地改良을 實施하고서도 變함 없는 栽培法을 繼續하는 限 처음에 期待했던 增産效果를 거둘 수는 없다. 即 農地改良에 依해서 變化하는 農地條件에 對應하여 栽培法도 改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從前的 農地改良事業에 있어서의 그다지 重要한 問題가 되지 않았었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農地改良이라면 部分的인 灌溉排水의 改良, 耕地整理, 農道의 新設改良等에 그쳐, 農地條件에 큰 變化를 가져오는 工事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近年 農業土木工學이 發達함에 따라 從前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大規模防潮堤工事, 大單位綜合開發事業, 그리고 밭

灌溉事業等이 活發하게 展開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農地條件의 變化에 對應한 合理的인 栽培技術의 뒷받침이 今後의 農地改良事業施行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될 要件이 아닐 수 없다.

한편 行政面에서는 사람의 面에서 보더라도 從前 農事改良事業에 從事했던 사람이나 機關에 있어서도 用水不足地에 對한 節水栽培法의 研究指導 또는 排水不良地에 對한 濕畚農法의 研究指導, 이러한 式으로 惡條件農地를 對象으로하는 營農法改良에만 重點을 두었던 나머지 農地改良에 依해 惡條件이 改善된 農地에 있어서의 營農改善에 關해서는 別로 關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農地改良事業 그 自體는 自己들의 領域밖이라 하더라도 農地改良이 이루어진 後의 農地는 自己의 領域으로 생각하고 研究指導의 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農地改良事業에 從事하는 技術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자칫하면 農地改良施設의 工事만을 完全하게 하기 爲한 나머지 事業全體의 方向에 對해서는 깊은 關心을 갖지 않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農地改良事業에 關係하는 사람이나 機關에 있어서도 農業生産의 增大를 目標로해서 農地改良을 實施하는 限 그 農地에 있어서의 從前의 栽培法은 多收穫技術로 改善하는 것이 農地改良의 窮局的 目的이요, 農地條件의 改善은 그 手段이라는 理念을 明確하게 가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眞實로 農民을 爲한 農地改良事業이 될 것이다.